

임실군, 을지태극연습 만전

재난 대비 국가위기대응연습·전시대비연습 구분 실시

임실군은 종합적인 국가 위기관리 연습 및 전시 대비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간 '2019년 을지태극연습'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 대응연습과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으로 구분되어 실시한다. 민방위 대피소 찾기,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국민생활 밀착형 체험훈련으로 각종 재난과 위기로부터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첫날인 27일 지진과 관련된 국가위기대응연습을 시작으로 28일

안보분야 매뉴얼 토의, 29일 공무원 비상소집 및 전시 직제편성 훈련 등이 실시됐다. 29일과 30일에는 도상연습 토의 및 전시현안과제 발표가 있었다. 전시대비 연습으로 29일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시설 점검훈련을 실시했으며, 30일에는 삼진강지사에서 대테러 민관군경 합동훈련과 주민대피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실제 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군은 이번 훈련에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을지태극연습이 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 '2019년 을지태

극연습 계기 특별안보 사진전'을 군청 1층 로비에서 실시해 비상대비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군은 '2019 을지태극연습' 홍보를 위해 안보사진전 및 연습 기간 중 2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체합단을 운영하고, 전시대비관련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근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을지태극연습으로 군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올 초부터 본격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순창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

순창군이 올 초부터 본격 추진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농촌마을 과소화 등 심각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와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는 주거공간으로, 지역예술가에게는 문화공간으로 5년 동안 무상 임대한다. 올해부터 빈집재생을 위한 보수비용 지원확대와 임대·활용방식도 대폭 개선했다. 소유자에게는

당당 지원금액을 1천 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임차인에게 기존 주변시세 반값 임대방식에서 올해부터 무상임대료로 전환해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 단순 주거형에서 지역내 문화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예술가들이 비영리 운영조건이면 문화공간으로도 무상 임대가 가능해졌다. 군은 올해 총 2억 2천만원을 투입해 11동을 지원하고 있다. 계획 중인 11동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정됐으며, 6동은 이미 귀농·귀촌인 8가구에 15명이 입주했다. 나머지 5동중 4동은 6월말까지 입주하기로 하고, 나머지 1동은 10월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정부양곡보관창고 시설현대화 나서

55개소와 도급계약 체결

남원시는 지난 4월 1일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55개소(저온창고 4, 특급 1, 1등급 49, 2등급 1)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국민안보차원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 생산농가들로부터 양곡을 매입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정부양곡보관창고 55개동을 순차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노후화된 보관창고 폐지와 시설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 저온저장고 4개소 1960㎡, 특급 1개소 1587㎡, 1급 6개소 2936㎡ 등 총 11개소 6483㎡를 신규로 시설해 고품질 쌀 품위향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갔다. 금년에도 신규로 현대화시설인 저온



남원시는 지난 4월 1일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55개소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저장고 1개소 486㎡를 신규도급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양곡보관창고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계약 체결된 보관창고에는 방충

망 설치, 환기기와 참고주변 배수로 정비 등 보관창고를 다각도로 시설현대화에 나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보공단 남원지사,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유학 또는 결혼이민인 경우는

입국해 외국인 등록한 날 가입해야 한다.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되나,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해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

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외국의 법령·보험 및 사용자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제의 신청대상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민 주도형 농촌활력 프로그램 추진

상반기 19개 마을에 3000만원 지원 한평 정원만들기 등

남원시가 농촌마을의 자원·경관과 전통놀이를 계승 발굴하는 차별화된 마을만들기 농촌활력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경제·교육·문화·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사업을 발굴 지원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올 상반기 19개 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인 할매들의 한평 정원만들기, 마용교실, 혼불이리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자하는 마을은 읍면동사무소에 6월 20일까지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마을단위 신청 기준이나 지리적 여건에 의해 연결마을과 협업체 신청할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에 선정된 마을에는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농촌활력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농촌의 자원과 경관을 다시 돌아보고, 전통놀이를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며, 마을 만들기 추진성과 책자를 발행을 위해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 아리

방역소독 친환경 연무소독 전향 남원시보건소, 6월 3일부터 방제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6월 3일부터 하절기 집중 해충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일본뇌염,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모기 박멸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올 여름 시가지 방역소독을 경유 확산제 연막소독에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막 방역소독은 경우를 확산제로 사용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배출이라는 여론에 따라 연막소독은 중단하고 물을 확산제로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며, 연무소독은 연기가 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유 대신 물을 확산제로 사용하는 연무소독은 확산력과 가시적 효과가 떨어지거나 수풀에 분사되어 있다가 휴식 중인 모기에 살충제가 묻어 치사시키는 방식으로 소독효과는 연막소독과 동일하다. 또한 보건소는 읍·면지역과 수풀이 많은 시 외곽지역, 시가지 하수구 등에 대해서는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고인물로 인해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에는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고, 사람의 광장, 요천 변 등 야간에 시민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는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를 가동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가동

임실군이 우울과 자살 위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 보건의로원은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임실읍 신우경로당에서 '뫼튼튼 마음탄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미 군은 앞서 지난 4월 강진면 가목리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이번사업을 통해 우울·자살 고위험군 주민을 면별로 10여명을 발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가면, 석교방향제 만들기 등 5회에 걸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은 지난 해 3개면에서 자살 고위험군 환자 15명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에도 치료 대상자를 30여명 이상을 발굴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 독거노인 우울증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여 우울증이나 자살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적극 돌보고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